국토교통부 동정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5. 1. 21.(화)

박상우 장관, “대심도 지하공간 안전사고 예방 철저” 강조

- 21일 철도인 신년 안전결의 대회 참석 후 GTX-A 삼성역 현장 찾아 철저한 안전관리·적기개통 만전 당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월 21일(화) 오후 **GTX-A노선**(운정중앙~동탄) 중 마지막 남은 **미개통 구간**인 **GTX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현장**을 찾아 **공사추진 상황** 및 **안전관리 현황**을 **점검**하였다.

○ **GTX-A 삼성역 구간**은 **'26년 무정차 통과**, **'28년 완전개통**을 **목표**로 **서울시**의 **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**과 **통합**하여 **추진**하고 있다.

□ 이날 박상우 장관은 **새해 철도안전**을 향한 **첫걸음**을 내딛는 「**2025 철도인 신년 안전결의 대회**」 **참석 후**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 결의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**GTX 삼성역 건설현장**을 찾았다.

□ 박 장관은 “GTX-A노선 중 마지막 남은 **삼성역**이 **연결**되면 **수도권 교통망 혁신**이 완성될 뿐 아니라 **경제·문화·주거** 등 **지역사회 전반**에 걸쳐 **획기적인 전환점**이 될 것으로 **기대가 크다**”면서,

○ “현재 삼성역 미개통으로 GTX 노선이 **수서~동탄**, **운정~서울역** 구간으로 **분리 운영**되고 있어 국민들께서 **이용 불편**을 겪고 있는데,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국민의 **기대**에 **부응**할 수 있도록 **개통 목표**를 **달성**하여 줄 것”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하였다.

○ 또한, ”**안전**은 **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의 가치**“임을 강조하면서, “도심 내 **대심도 지하공간 건설**이라는 난이도 높은 공사과정에서 공정관리에만 치중하여 자칫 **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** 추락, 자재낙하 등 **안전사고 예방**에 **만전**을 기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끝으로, 박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“지난해 **수서~동탄**(3.30), **운정중앙~서울역**(12.28) 구간을 성공적으로 **개통**한 경험을 토대로 **GTX 삼성역 구간**도 **안전하게 개통**할 수 있도록 **서울시**, **국가철도공단** 등 **모든 관계기관**이 **마지막까지 최선**을 다해줄 것”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건설과	책임자	과 장	서정관 (044-201-3964)
		담당자	팀 장	육인수 (044-201-3963)
		담당자	서기관	이상욱 (044-201-3981)
		담당자	사무관	유지완 (044-201-3967)
		담당자	주무관	안남현 (044-201-3978)
		담당자	주무관	송인규 (044-201-402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